



◆ 미 수은, 나이지리아 LNG 생산설비 수출을 위한 1억 3,500만 달러 수출보증 제공

미 수은은 총 19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LNG 생산설비 확장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1억 3,500만 달러 규모의 종합위험보증(Comprehensive Guarantee)을 제공기로 결정하였다. 이는 미 수은의 나이지리아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 중 단일건으로는 최대 규모로서, Project Finance Risk와 Corporate Credit Risk를 함께 보증하는 형태로 제공된다. 수출자는 텍사스주 소재 엔지니어링 및 건설회사인 KBR(Kellog Brown

& Root)社이고, 만기는 8.5년이며 보증대출기관은 Citibank이다. 미 수은은 이번 지원 결정이 상환의 확실성 및 신용도가 입증되는 경우 수출업체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이 가능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.

한편,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 수은 이외에도 SACE, NCM 및 ECGD 등의 ECA와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【林天一】